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51 “우리도 뛰다”



광주시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원 30여명이 9일 청사 현관에서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민들과 함께 달리며 행복한 북구 알려야죠”

■ 광주 북구청

“주민과 함께 달리며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 스타트 총성을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이경범 환경과장)의 설립 슬로건이다.

북구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 2005년 3월 22일 직원들의 친목과 구정 홍보를 위해 2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회원 수가 50여 명에 이른다.

회원 가족 등 87명 참가

슬로건에 맞게 각종 전국 마라톤 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에 있는 민·관·직장 및 지역 마라톤 동호회와도 합동 훈련을 갖는 등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는 이번 3·1절 전

국마라톤 대회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동호회원뿐 아니라 고경미(여·37·행정 7급)·김광렬(44·)씨 등 회원 가족들도 대거 신청해 전체 참가 인원은 8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km가 74명, 10km 7명, 하프와 풀코스 각각 3명이다.

두 달 前부터 집중 훈련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 총무 나복실(여·35·행정 7급)씨는 “동료 및 가족들과 함께 달려 직장 생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주 주중 한 차례 전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기 훈련을 하고 있는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 핵심멤버 중에는 이철형(48·행정 7급) 훈련부장을 비롯한 양승필 보건행정과장, 김광렬씨 등 41.195km 풀코스를 완주한 회원이 4~5명에 달한다.

뛰어난 지구력과 경주 능력을 보유하

고 있는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단순한 참가를 넘어 상위권 입상에 노리고 있다.

풀코스 3명이나 도전

특히 이철형씨는 울트라 마라톤 1회 완주, 풀코스 완주만 해도 20회에 이를 정도로 체력과 경기운영 기술이 우수한 선수다.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는 두 달 전부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북구 일곡동~담양군 봉산면 등 일원에서 훈련하며 틈틈이 체력을 키우고 있다.

이경범 북구 마라톤 동호회장은 “이번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건강도 다지고 주민 감동을 실현해 나가는 청병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꾸준한 동호회 활동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마라톤 동호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FA 김동주 일본행 무산

요코하마서 영입 거절

두산과 재계약 급물살

김동주(32·사진)의 일본행이 무산되면서 친정팀 두산과의 자유계약선수(FA)계약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산케이 스포츠는 9일 “일본 요코하마 구단이 전날 에이전트를 통해 영입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동주가 일정액 이상의 대우를 바라는 것에 대한 부담과 팀 내 입지가 굳건한 주전 3루수 겸 4번 타자 무라타 슈이치와 포지션이 겹치는 점이 영입 거절의 원인으로 분석

된다.

김동주의 일본진출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두산과의 계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두산은 지난해 FA우선협상기간에 4년의 계약기간에 최대 62억원을 제시했으나, 김동주가 일본 진출을 추진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제시했던 카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두산은 연봉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만큼 당초 언급했던 것보다 삭감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팀 간판 타자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에 대한 고려도 불가피하다. 일본 진출에 대한 굳은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면 김동주가 계약기간 축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금액 산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협상 마감 시한은 15일. 마감 시한까지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김동주는 FA자격은 유지하지만 올 시즌을 뒀 수 없다.

일본진출이라는 비장의 카드 없이 긴박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 김동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배구 3강 구도 ‘아니 벌써’



남자부 삼성화재·대한항공·현대캐피탈

여자부 KT&G·흥국생명·GS 칼텍스

프로배구 2007-2008 V-리그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3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팀들의 윤곽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다.

전체 7라운드 중 3라운드 초반인 9일까지 남자부 구도는 삼성화재(11승1패)의 선두 독주 속에 대한항공(8승3패)과 현대캐피탈(7승4패)이 2, 3위를 뒤를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각 팀의 전력이 완전하게 드러나면서 팀 순위가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겨울리그 9연패에 빛나는 ‘전통 명가’ 삼성화재는 장병철과 김정훈이 주전을

쾌차는 등 신진식 은퇴 후 세대교체에 성공하며 특유의 톱니바퀴 조직력을 앞세워 선두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막강 화력을 보유한 대한항공과 ‘장신 군단’인 현대캐피탈도 3강 후보다.

지난해 한국배구연맹(KOVO)컵 마산대회 챔피언 대한항공은 ‘삼바 특급’ 보비와 토종 공격수인 신영수, 장광균, 강동진, 김학민이 스파이크 쇼를 펼치고 있다.

또 겨울리그 3연패를 노리는 현대캐피탈도 ‘거미손’ 이선규와 윤봉우, 하경민, 신경수가 버티는 센터진이 철벽 블로킹

벽을 치고 후인정, 송인석, 박철우도 좌우 날개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여자부도 KT&G(9승1패)와 흥국생명(8승1패)이 ‘양강’을 이뤘고 GS칼텍스(4승5패)가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시즌 최하위 KT&G는 최고의 세터 김사나기 정교한 토스위크로 공격을 조율하며 페르난다 배티 알비스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또 통합우승 2연패를 달성했던 흥국생명도 김연경-황연주-마리 헬렌이 공격 3각 편대를 이뤄 개막전 패배 후 좌측의 8연승 행진으로 선두를 넘보고 있다.

GS칼텍스는 리베로 남지연이 손가락 골절, 라이트 나혜원의 허리 통증 등 부상 압축을 만났지만 신인 거포 배유나까지 버텨 막강 전력을 자랑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꺾으려면 뒷골목서 린치해야”

美 골프채널 앵커 발언 파문

“단어 잘못 사용” 우즈에 사과

미국 스포츠 채널인 ‘골프채널’의 앵커가 방송 중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 대해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9일(한국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2년째 앵커를 맡고 있는 켈리 킬먼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을 중계하던 5일 우즈를 꺾기 위해서는 “뒷골목에서 린치(lynch)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방송을 하던 해설위원 니 팔도가 젊은 선수들이 일치 단결해 우즈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하자 킬먼이 농담으로 ‘린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맞장구를 친 것이 문제가 된 것.

‘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사형(私刑)이라는 뜻으로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에 가한 폭력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문제가 커지자 킬먼은 사과문을 통해 “잘못된 단어를 사용했다. 12년 동안 타이거와 알고 지냈는데 그에게 직접 사과했다. 시청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10일(목)

▲2008 ATP 테니스 쿠용 클래식(08:50·SBS스포츠)

▲07/08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우리은행)(16: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KT&G:LG)(18:50·SBS스포츠·XPORTS)

▲07/08 V리그 남자부(대한항공:상무)(18:30·KBS N SPORTS)

▲07/08 대학장사 씨름 영월 한마당 소장급(14:00·MBC ESPN)

농성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 서경빌딩임대

368-8889

임대 약 100평 (전용가방)

1. 2층: 사무실/회의실, 3층: 사무실/회의실, 4층: 사무실/회의실, 5층: 사무실/회의실, 6층: 사무실/회의실, 7층: 사무실/회의실, 8층: 사무실/회의실, 9층: 사무실/회의실, 10층: 사무실/회의실, 11층: 사무실/회의실, 12층: 사무실/회의실, 13층: 사무실/회의실, 14층: 사무실/회의실, 15층: 사무실/회의실, 16층: 사무실/회의실, 17층: 사무실/회의실, 18층: 사무실/회의실, 19층: 사무실/회의실, 20층: 사무실/회의실, 21층: 사무실/회의실, 22층: 사무실/회의실, 23층: 사무실/회의실, 24층: 사무실/회의실, 25층: 사무실/회의실, 26층: 사무실/회의실, 27층: 사무실/회의실, 28층: 사무실/회의실, 29층: 사무실/회의실, 30층: 사무실/회의실, 31층: 사무실/회의실, 32층: 사무실/회의실, 33층: 사무실/회의실, 34층: 사무실/회의실, 35층: 사무실/회의실, 36층: 사무실/회의실, 37층: 사무실/회의실, 38층: 사무실/회의실, 39층: 사무실/회의실, 40층: 사무실/회의실, 41층: 사무실/회의실, 42층: 사무실/회의실, 43층: 사무실/회의실, 44층: 사무실/회의실, 45층: 사무실/회의실, 46층: 사무실/회의실, 47층: 사무실/회의실, 48층: 사무실/회의실, 49층: 사무실/회의실, 50층: 사무실/회의실, 51층: 사무실/회의실, 52층: 사무실/회의실, 53층: 사무실/회의실, 54층: 사무실/회의실, 55층: 사무실/회의실, 56층: 사무실/회의실, 57층: 사무실/회의실, 58층: 사무실/회의실, 59층: 사무실/회의실, 60층: 사무실/회의실, 61층: 사무실/회의실, 62층: 사무실/회의실, 63층: 사무실/회의실, 64층: 사무실/회의실, 65층: 사무실/회의실, 66층: 사무실/회의실, 67층: 사무실/회의실, 68층: 사무실/회의실, 69층: 사무실/회의실, 70층: 사무실/회의실, 71층: 사무실/회의실, 72층: 사무실/회의실, 73층: 사무실/회의실, 74층: 사무실/회의실, 75층: 사무실/회의실, 76층: 사무실/회의실, 77층: 사무실/회의실, 78층: 사무실/회의실, 79층: 사무실/회의실, 80층: 사무실/회의실, 81층: 사무실/회의실, 82층: 사무실/회의실, 83층: 사무실/회의실, 84층: 사무실/회의실, 85층: 사무실/회의실, 86층: 사무실/회의실, 87층: 사무실/회의실, 88층: 사무실/회의실, 89층: 사무실/회의실, 90층: 사무실/회의실, 91층: 사무실/회의실, 92층: 사무실/회의실, 93층: 사무실/회의실, 94층: 사무실/회의실, 95층: 사무실/회의실, 96층: 사무실/회의실, 97층: 사무실/회의실, 98층: 사무실/회의실, 99층: 사무실/회의실, 100층: 사무실/회의실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업/집/대/합숙

교육장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